

## 여호수아(20)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 본문

수 14:6-15

### ■ 시작 찬송가

429장(통 489장)

### ■ 헌금 찬송가

438장(통 495장)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세상은 영웅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한 명의 영웅,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함께 비춰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쓰시는 하나님은 갈렙도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 충성하는 사람, 갈렙

갈렙은 용감하고, 꿈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렙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는 ‘충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로 거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인 아르바 사람들이 다스렸던 땅입니다. 갈렙은 가나안의 많고 많은 땅 중에서 기름진 평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땅을 뒤로하고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갈렙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 (1) 충성하는 자의 일관성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갈렙에게 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정탐을 마친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홀로 이스라엘과 모세를 향해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렙에게 특별한 안목이나 전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다른 정탐꾼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경은 본 것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보고한 갈렙을 ‘충성’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충성한 갈렙에게 원하는 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민 13: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수 14: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진 충성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 하는 충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율법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충성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런 모세가 가진 충성의 일관성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도, 가나안을 정찰할 때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의 일관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 (2) 충성하는 자의 담대함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의 간담을 녹게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담이 녹아내려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갈렙도 똑같이 아낙 사람을 보았지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 14: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 ▶ 40일이 40년으로(민14)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회막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갈렘은 유다 지파 대표로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에서 내쫓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애굽을 떠났습니다.

수 14: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한 갈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중용되고, 마침내는 분깃을 얻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쓰임 받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 (3) 충성하는 자의 강건함

갈렘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하며 자신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며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40세의 몸과 85세의 몸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렘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 감당함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 14: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렘이 이렇게까지 땅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과거 가나안을 정탐하며 이스라엘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했던 아낙 자손, 그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아르바 사람들이 여전히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갈렘은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지게 한 이 어려운 곳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땅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갈렘의 요구는 욕심이 아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욕심이 아닌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보다 강한 아낙 자손과 같은 일들을 무찌르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 14:13-15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렘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렘은 잠깐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습니다. 온전히 좇았다는 말은 다른 역본에서는 충성하였다고 번역합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좇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갈렘과 같이 충성하며 말씀을 온전히 좇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을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머리를 써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으로 섬겨야 합니다.

(2019.01.20. 주일찬양예배 중)

#### 오늘의 한마디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